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24위 복자

복자 지황 사바

(1767-1795)



‘지흥’으로도 알려진 지황(池瓊)은 1767년 한양의 궁중 악사 집안에서 태어났다. 성품이 순직하고 부지런했던 그는 천주교에 입교하자마자 하느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였다. 그래서 1793년 성직자 영입 운동을 위한 밀사로 뽑혔고, 마침내 1795년 초 주문모 야고보 신부를 모셔올 수 있었다.

그러나 곧 주 신부의 입국 경위가 밝혀지면서 그는 윤유일 바오로와 함께 체포되었다. 그리고 윤 바오로, 최 마티아와 함께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배교하지 않았고, 결국 사정없이 매를 맞아 숨을 거두었다. 이때가 1795년 6월 28일, 지황의 나이는 28세였다.

이후 북경의 구베아 주교는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듣고 이렇게 기록하였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공경하느냐?’라는 질문에 용감히 그렇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모독하라고 하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참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기보다는 차라리 천 번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단언하였습니다.”

성화_김형주 작,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5

사순 제5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시편 43(42), 1-2 참조

하느님, 제 권리를 찾아 주소서. 불충한 백성에게 맞서 제 소송을 이끌어 주소서. 거짓되고 불의한 자에게서 저를 구해 주소서.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의 힘이시옵니다.

제1독서

이사 43, 16-21

화답송

시편 126(125), 1-2ㄱㄴ, 2ㄷㄹ-3, 4-5, 6(◎3 참조)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 겹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2독서

필리 3, 8-14

복음 환호송

요엘 2, 12-13 참조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

복음

요한 8, 1-11

영성체송

요한 8, 10-11 참조

여인아,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으리라.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간음하다 잡힌 여인



올리브 산에서 바라본 예루살렘 전경

오늘 복음에는 간음죄에 얽힌 사건이 나옵니다. 올리브 산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 성전으로 가시자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는데, 간음하다 발각된 여인도 붙들려온 것입니다. 간음죄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서도 큰 죄로 여겨져(창세 20,6.9 참조), 옛 함무라비 법과 히타이트 법에 따르면 남녀 모두 사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함무라비 법 129항; 히타이트 법 197항). 다만 고대근동에서는 남편이 원할 경우 처벌을 약하게 할 수 있었으나(함무라비 법 129항; 히타이트 법 198항) 이스라엘에서는 달랐습니다. 혼인은 하느님께서 맺어주시는 관계라고 보았기에(말라 2,14), 간음죄 처벌을 감해주거나 면제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레위 20,10; 신명 22,22-24 참조).

그런데 레위기와 신명기의 율법을 보면 간음이 남녀 둘 다 처벌받아야 하는 죄인데도, 오늘 복음의 바리사이와 율법 학자들은 남자를 빼놓고 여인만 데려와 단죄하려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바리사이의 무리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셈입니다. 사실 이들은 여인에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옹아매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물어 그분께 답을 내놓으려 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간음녀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답하면, 오경 율법에 도전하는 모양새가 됩니다(5절). 반대로, 율법을 지키라 해서 여인이 투석형이라도 받고 사망하면, 로마법에 어긋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민간인들의 사형 집행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면

초가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한동안 땅에 글만 쓰셨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교부 히에로니무스는 그곳에 모인 군중과 인류의 죄를 다 쓰셨다고 풀이합니다. 이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주님 … 당신에게서 돌아선 자는 땅에 새겨지리이다.”(17,13)라는 구절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바리사이의 무리가 즐기게 답을 요구하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죄 없는 이부터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원래는 간통을 목격한 증인들이 돌을 던지면 군중이 그 뒤를 잇는 법인데(신명 17,5-7),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뒤 또다시 글만 쓰시자 나이 든 사람부터 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나이 많은 사람일수록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탓이었을 것입니다. 군중이 다 사라지고 여인만 남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제야 여인을 보시고 당부하십니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요한 8,11).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여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너”(10절, 11절)라고 부르며 타이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의 덫을 어떻게 빠져 나가셨는지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집인 성전 앞에서도 율법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해 약자에게만 엄격히 들이대는 이들의 마음을 바로잡으심으로써 율법의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곧 단죄 자체가 아니라 죄의 정화와 구원에 있음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



교회, 성체성사로 설립되다

「교회헌장」 3항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에게서 파견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당신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곧 성자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성부에게서 파견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헌장」은 에페 1,4-5.10의 말씀에 따라 성자에게서 구원받을 인간을 성부께서 성자 안에서 창조 이전에 뽑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성부의 구원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늘나라를 세우기 시작하고 성부 하느님을 드러내 보여주며 성부의 뜻에 순명하여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늘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종말에 완성될 하느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다는 의미입니다.

「교회헌장」은 이렇게 신비 안에 이미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곧 교회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성사가 됩니다. 이제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의 힘으로 교회를 통해 세상에서 볼 수 있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느님 나라를 향해 가시적으로 성장하지만 동시에 이미 현존하는 하느님 나라 그 자체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가시적 표징인 교회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심에서 예비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써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헌장」은 교회의 기원과 성장이 십자가에서 창에 찢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로 상징된다고 말합니다. 「전례헌장」 5항의 “십자가에서 잠드신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온 교회의 놀라운 성사가 솟아 나왔다.”라는 언급과 하와가 잠든 아담의 옆구리에서 만들어졌듯이 교회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잠든) 그리스도의 꿰뚫린 심장(옆구리)에

서 태어났다는 암브로시오 성인의 설명(「가톨릭교회교리서」 766항 참조)은 교회의 기원을 성체성사에 두는 「교회헌장」의 가르침을 뒷받침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기원과 성장은 성체성사와 관련이 깊습니다. 「교회헌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사가 제단에서 거행될 때마다, 그리고 성찬의 빵을 나눔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룰 때마다, 신자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일치가 실현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성체성사 안에서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고 신자들도 서로 일치를 이루도록 불림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며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체성사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신자들 간의 일치를 이루도록 불림 받았다. 틴토레토, 〈최후의 만찬〉, 1592-1594년, 산 조르조 마조레 바실리카(베네치아) [부분]

세례로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주일마다 성당에 모여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주님께서 수난 전날 제자들을 불러모아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성체성사를 제정하시고 이를 행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일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성당에 함께 모여서 성체성사를 거행합니다.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요한 2,17)

강도 높은 항암치료를 받던 중 내장 기관이 부담을 견디지 못해 복막염 수술까지 하게 된 50대 여성 환자를 위한 방문이었다. 병자성사를 요청한 환자의 아들이 여동생과 함께 병동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보호자 출입증을 인식시키고 안전문이 열리니 환자의 아들이 함께 들어가던 동생을 막아섰다. “간호사님께서 신부님과 보호자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셔서.” “오빠, 이번엔 그냥 방문이 아니잖아?” “그래도…” 보다 못한 내가 “혹시 누가 뭐라고 하면 제가 잘 이야기할 테니 지금은 함께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엄마를 위한 기도인데 동생도 함께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환자와 간단한 안부 인사를 나눈 다음, 나는 병자성사부터 드렸다. 정해진 인원보다 더 들어온 것에 대해서 환자의 아들이 너무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성사(聖事)를 마치자마자 환자의 아들이 동생더러 이제는 자기가 나가 있을 테니 신부님 잘 모시고 나오라고 하는 것이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환자가 나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신부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고지식해요.” 그리고 나서 여전히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는 아들에게 말했다. “엄마가 여기 간호사님들하고 다 친해져서 괜찮아. 그러니 오늘은 모두 함께 있으면 안 될까?” 아들이 멧쩍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니 환자가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이런 모범생이 그날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영문을 모르는 나를 위해 환자가 며칠 전 위험했던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날 항암치료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왔는데 이 앞에서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운전하던 아들이 저를 돌아보고 뭐라고 소리치

는데 그마저 먹먹하게 들리고요. ‘이렇게 죽나?’ 하는 와중에 제 눈에 아들이 차 문을 열고 병원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게 보이더군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렇게 수술까지 다 끝난 상태였지요.” 환자는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 숨이 차다며 다음 이야기는 아들더러 직접 하라고 했다.

“차 빼라고 소리치는 걸 들으면서도 무작정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아무나 빨리 와서 우리 엄마 살려내라고 소리쳤어요. 이러다 우리 엄마 죽는다고…” 그때의 감정이 올라오는지 아들이 더 말을 잇지 못하자 동생이 나섰다. “우리 오빠가 그랬을 거라고는 저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야말로 난동을 피웠대요. 그래서 응급실로 모셨는데, 병원 측에서도 이런 경우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환자의 아들이 동생을 보면서 중얼거리듯 말했다. “나도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땐 정말 엄마 말곤 아무것도 내 눈에 안 보이더라고.”

고지식하고 순하기만 한 그의 눈동자에 죽음의 위협에 빠진 엄마 말곤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었을 때, 그는 이른바 ‘어떤 난동이라도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그동안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을 ‘성전 정화에 진심’ 정도로나 알아들었던 나를 깨우치시려고 뜻밖에 난동꾼이 되었던 환자의 아들과 만나게 하셨다. 그래서 당신이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을 쫓아내실 때, 환자들을 다독이던 그 손에 채찍을 들고 손수 탁자들을 뒤엎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버지 하느님 말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당신의 눈동자를 그에게서 다시 보게 하셨다. ☺



교구
소식

한마음 성경공부 2단계 - 4복음서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주제		월요일 / 오후 2시		토요일 / 오후 4시	
제1강	성경 개관 및 성경을 읽는 마음 자세	5/12	본관대강당	5/17	통나무강당
제2강	신구약 중간사	5/19		5/24	
제3강	고대 근동 팔레스티나 지역에서의 일상적 삶	5/26		5/31	
제4강	사회구조와 경제활동	6/2		6/7	
제5강	성전과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축제와 종교분파들	6/9		6/14	
제6강	각 복음서에 나타나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6/16		6/21	

대상 성경 공부를 통해 쉽게 하느님 말씀을 접하고 이를 바탕으로 묵상하고 싶은 신자들

일정 월요일과 토요일 중 택 1 (교차출석 가능)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내 변경 가능)

강사 김경진 베드로 신부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교육담당)

회비 1인당 총 12만원

문의 031-840-0018 (내선 201)

신청 ▶



월간성서 <4월호> - 성경이란 무엇인가?

일정 4/3(목), 10(목), 17(목) [총 3회 업로드]

강사 엄철호 사도요한 신부 (부산 가톨릭대학교 부총장)

신청 ▶



중등부 및 고등부 1~2학년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4/27(주일) 10시

장소 해화동 대신학교

제35차 의정부교구 약혼자주말

일상의 긴장에서 벗어나 짝공과 함께 이해, 일치, 사랑을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일시 5/9(금) 19시 ~ 11(주일) 16시

장소 예수마음배움터 (경기도 파주시 한빛로 21)

대상 예비부부, 혼인 5년 미만의 부부

문의 031-850-1456 가정사목부

신청 ▶



전신자 성경 읽기

4/6(주일)~12(토) : 요한 7,25-39



4/26(토) 해설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시청

사순
시기
운동

‘사랑의 단식제’와 ‘가난한 이들을 위한 공동 헌금’

사순 시기 운동은 모든 신자가 신앙 쇄신을 위한 재교육과 공동체적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하여 197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78년부터 “사랑으로 가진 바를 나누자”라는 주제로

① 이웃 사랑 의식 교육, ② 단식제 권고, ③ 전국 헌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 11일(금)은 ‘사랑의 단식제’ 권고일입니다. 이날 단식으로 모은 돈을

4월 13일(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가난한 이들을 위한 공동 헌금’으로 봉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정부교구는 사회사목국을 통해 이 공동 헌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예정입니다.

교우 여러분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미사 · 피정 ▶▶

3·4지구 성령기도회 영성 피정

일시: 4/11(금) 13시~16:30

장소: 주교좌 의정부 성당 대성전

강사: 김현우 바오로 신부 (인천교구)

내용: 특강, 미사, 안수

문의: 010-3790-0496

제주면형의집 피정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추차도포함성지순례: 4/27(주일)~30(수),

5/4(주일)~7(수), 5/26(월)~29(목)

생태순례: 5/10(토)~12(월), 5/20(화)~22(목),

6/15(주일)~17(화)[주], 6/20(금)~22(주일)

우도섬포함여름피정: 7/19(토)~21(월)

문의: 064-756-6009, 02-773-1463

토아올람 화요 치유 피정

일시: 매주(화) 12시~16시, 명동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강사: 4/8 김도영 신부, 4/20 이영숙 수녀

문의: 010-5514-4077 회장

프란치스칸 효소 단식 피정

날짜: 4/25(금)~27(주일) [2박3일]

장소: 곤벤뚜알 성프란치스코수도회 (양평수도원)

주제: 비움에서 충만으로

강사: 수도회 신부 / 회비: 25만원

문의: 010-8858-7814 구원도 신부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날짜: 4/25(금)~27(주일), 5/9(금)~11(주일),

5/21(수)~23(금) [성모의밤], 5/24(토)~26(월)

추차도포함: 4/29(화)~5/2(금),

5/17(토)~20(화), 6/21(토)~23(월)

문의: 064-796-4182, 02-773-1455

ICPE 흡송 기도회

일시: 4/20(주일) 14시 (미사 있음)

장소: 과달루페 외방선교회 (합정동)

문의: 010-8724-4787, ICPE 카톨릭친

성주간 한마음 다락방 피정

초기 교회 공동체 모습을 재현하며

하느님 현존을 체험하는 1박2일 피정

날짜: 4/14(월)~15(화)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회비: 10만원 (선착순 30명)

예수수도회 영신수련 개인 피정

장소: 메리워드 영성의집 (혜화동)

대상: 청년이면 누구든 (미혼, 기혼)

피정: 1일, 1박2일, 2박3일, 생활피정

문의: 010-4037-1609

엠마오 피정

호명산까지 걸어서 엠마오 여행 후

산 정상에서 부활특강과 함께하는 미사

일시: 4/21(월) 10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회비: 2만원 (선착순 150명)

한마음 어게인 Talk톡 토크콘서트

Lectio Divina를 통한 네버엔딩 스토리

일시: 4/26(토) 10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하늘 광장

참가비: 1인당 4만원 (선착순 300명)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4/12(토) 10시, 풍동 성당

4/26(토) 10시, 주교좌 의정부 성당

문의: 02-3673-2525

구산 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착하신 목자 우리 주님!

일시: 4/12(토) 14시~18시 / 장소: 구산성지

내용: 성경직해 (신앙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지도: 정종득 신부, 성가: 고영민 / 회비: 1만원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집 피정

개방의날 무료피정: 5/2(금) 10시~15:30

사도행전과 함께하는 대침묵피정: 5/9(금)~11(주일)

성지순례안내 (크로아티아, 메주고리에) :

4/27(일)~5/9(금)

토요성모신심 기도회와 미사: 5/17(토) 10시~12시

다네이영성수련: 6/27(금)~29(주일)

문의: 02-990-1004 예수고난회 서울명상의집

2025 회년 성령새신 전국대회

일시: 4/26(토) 09시~17:30

장소: 음성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주제: 희망의 순례자

강사: 문덕캣 신부 (말씀과 영적치유 피정지도자)

주관: 한국가톨릭성령새신봉사자협의회

문의: 02-777-3211

전대사 은총과 함께 일일 피정

일시: 4/13(주일) 10시~16시 (09시 미사 참석가능)

장소: 스승예수제자수녀회 (4호선 미아역)

주제: 하늘이 열렸다

내용: 묵주기도 빛의 신비, 성체조배

강사: 김 마리아 제수이나 수녀

문의: 010-9742-3842, 02-984-4801

의정부교구 성령새신 금요밤 기도회

일시: 4/11(금) 21시~24:30, 마두동 성당 대성전

주제: 찬양과 치유 기도회

문의: 010-2127-0032

※ 4/18은 성금요일로 기도회를 쉽니다.

성베네딕도문화영성센터 탐방, 성지순례

6/14(토)~17(화): 부산11~마산6

6/21(토)~23(월): 춘천15~성내동성당

출발: 가톨릭회관 후문 (서울 명동)

8/28(목)~9/3(수): 백두산~브뤼기에르주교 죽음의 길

문의: 010-3807-1784 라이시돌

성 이나시오 영신수련 피정

일시: 6/12(목) 17시 ~ 15(주일) 16시 [3박4일]

장소: 제주 성 이시돌 피정의 집

담당: 이재욱 요한 신부 (예수회)

회비: 30만원 (농협: 301-0197-3172-01)

문의: 064-739-0951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날짜: 4/25(금)~28(월), 5/16(금)~19(월),

6/20(금)~23(월)

장소: 성 도미니코 수도원 (수유동)

회비: 36만원 (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본당 출장 피정 신청 가능)

2025년 성모님께 드리는 33일 봉헌

부활대피정: 4/23(수)

강사: 한연흠 신부, 한영임 회장

성모님께 33일 3차 봉헌: 4/2(수)~5/4(주일)

오전: 묵주기도 20단

오후: 봉헌 기도 (강의, 기도, 파견미사)

장소: 부천시 경인로 61-1 지혜의샘 (중동역 5분)

문의: 010-3248-9705

강우일 주교와 함께 푸른꿈 제주섬 피정

제주섬에서 쉼, 순례(성지, 자연), 말씀 초대

날짜: 4/23(수)~25(목), 5/21(수)~23(목),

6/9(월)~11(수), 9/18(목)~20(토)

장소: 성 이시돌 피정의집 (한국통합사목센터)

대상: 개인, 단체, 가족, 본당 사목위원 및 구반장

문의: 010-9670-9775, 010-7200-4567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2일: 4/12(토)~13(주일), 6/28(토)~29(주일)

2박3일: 5/4(주일)~6(화), 6/23(월)~25(수)

3박4일: 6/5(목)~8(주일), 7/3(목)~6(주일)

8박9일: 4/23(수)~5/1(목), 5/14(수)~22(목)

40일: 4/21(월)~5/30(금)

장소: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교육 · 모집 ▶▶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고양, 서울시 순으로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청학 성당 초단시간 관리직원 모집

인원: 1명 (만 60세 이상)
업무: 미화, 시설관리 등
근무: 수~금, 09시~12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본당신부추천서
우편: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68번길 67
접수: 4/30(수)까지 (우체국 소인 기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피나음악원: 일산(금) 11시
문의: 010-9842-8818

생활성가와 함께하는 한마음 청소년 음악 캠프

1차: 7/23(수)~25(금), 2차: 7/25(금)~27(주일)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인원: 100명 (선착순) / 회비: 23만원 (식대 포함)
문의: 010-5399-7626 권성일 미카엘

해외가톨릭사립학교 입학설명회

일시: 4/26(토) 15시 [예약 필수]
(현지 학교 관계자 참석)
학교입학: 초4~고2, 미국·아일랜드 6개월 이상
여름캠프: 초3~중2, 아일랜드 4주/2주
문의: 02-2258-8983, oakinternational.co.kr
그리스도례지오회 해외학교법인

피아타스 시니어 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의정부교구 내 성가 합창 경험있는 교우.
알토 파트 대환영
연습: 매주(수) 19:30, 정발산성당
문의: 010-3330-3725 이경원 베드로 지휘자

오남 성당 성가대 지휘자 모집

일시: 매주일 11시 교중미사
자격: 천주교 신자로 성가대 지휘 유경험자
서류: 교적증명서, 이력서 (학력, 일반경력 및
가톨릭음악 관련 활동 포함)
성가대 연습: 평일 및 주일
접수: 우편 또는 이메일 onam1@uca.or.kr
※ 소정의 수수료 지급 (채용시 마감)

2025 봄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기간: 4/22(화)~6/26(목)
접수: 4/7(월)부터 선착순
장소: 서울대교구 교구청 및 영성센터
내용: 영성, 인문학, 미술사, 문화
신청: 문화학교 홈페이지 culture.catholic.or.kr

2025 가톨릭한반도평화포럼 참가자 모집

한반도와 북아일랜드의 피스빌딩 경험을 공유하고,
청년들이 피스빌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피스빌딩에
관심 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기간: 7/12(토)~21(월)
장소: 북아일랜드 벨리캐슬 코리밀라
대상: 피스빌딩 활동에 관심 있는 청년 (12명 선별)
서류: 참가신청서, 청년담당신부추천서,
자기소개서
접수: 4/20(주일)까지
문의: 031-850-1501, cinap.imweb.me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안내 · 기타 ▶▶

살레시오 교육관 대관

내용: 세미나, 연수, 피정, 교육 가능
문의: 02-828-3522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봉안당·봉안담·평장묘 분양

연천 착한의견의성모 수도원의 봉안당, 봉안담,
평장묘(화장후 매장)를 일반 신자분들께 분양
문의: 031-834-1262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09시~17시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미리 준비하는 추석연휴 순례
10/3(금)~13(월) 중앙아시아 (498만원)
10/7(화)~12(주일) 필리핀 (205만원)
10/7(화)~10(금) 중국, 상하이 (168만원)
10/7(화)~10(금) 홍콩, 마카오 (189만원)
문의: 02-2281-9070

가톨릭 여성 심리 상담소

일시: 월~금, 10시~16시
내용: 심리, 가족갈등 (전화상담)
문의: 02-990-9366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5/14(수) 일본 나가사키 운젠 (4일, 150만원)
5/19(월)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13일)
6/9(월) 유럽 4개국 성모님 3대 발현지 (12일)
8/9(토) 이탈리아, 알프스, 프랑스 (11일, 550만원)
9/17(수) 희망의 순례자들 회년 이탈리아 일주 (11일)
10/20(월) 시니어 산티아고 도보 순례 (12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5/6(화)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12일, 560만원)
6/3(화) 조지아, 아르메니아 (10일, 470만원)
7/4(금) 성모님 발현성지 4개국 (12일, 560만원)
9/4(목) 발틱 3국 (9일, 46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성심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7/8(화) 메주고리에 성모성지 (11일)
지도: 조승균 바오로 신부
5/26(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9/18(목) 이탈리아 성체기적성지 (9일)
문의: 010-5909-5997 성심여행사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 42일

9/21(주일) / 비용: 599만원 (+2,100유로)
가톨릭 트래블 - 루르드, 파티마 순례 포함
문의: 070-4086-0207, catravel.co.kr

라파엘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5/12(월)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45만원)
9/8(월) 성모님발현지와 스페인북부 (12일, 535만원)
10/13(월), 10/20(월) 출발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69만원)
11/2(일), 11/8(토) 출발
대회년 이탈리아 (7일, 295만원)
문의: 02-778-8565 라파엘 여행사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2025년 상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송림동)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
봉안: 60년 (30년, 추가 30년 가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접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 의
	한국외방선교회	수시	서울 성북동	010-8715-2846
	의정부가르멜여자수도원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35세 미만 미혼 여성		010-8078-7016

기념 (Anamnesis)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제정하면서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교회는 날마다 성찬례를 거행합니다. 따라서 미사 전례는 그리스도를 기념(기억)하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찬례 중 성찬 제정 축성문뿐 아니라 ‘기념 기도’도 바치면서 주님의 명을 성실히 수행합니다.

기념 기도는 초 세기부터 거의 모든 전례에 나오는데, 그 내용은 예수님의 구원 업적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주님의 수난(죽음)과 부활이 기념의 핵심을 이룹니다. 동방 전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수난과 부활과 승천을 기념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가면서 육화, 탄생, 성부 오른편에 앉으심 등이 덧붙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있을 주님의 재림이 포함되기도 하였습니다.

제1양식(로마 전문)에서는 주님의 수난과 부활과 승천을 기념합니다: “주님, 저희 봉사자들과 주님의 거룩한 백성은 성자 우리 주 그리스도의 복된 수난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과 영광스러운 승천을 기념하나이다.” 이 양식의 뿌리가 되는 고대 교회는 성찬례때 주님의 수난뿐 아니라 영광스러운 승리도 기념하였습니다.

제2양식은 히폴리토의 기도에 따라 죽음과 부활만 기념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이 기도는 히폴리토의 감사기도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제3양식은 수난과 부활과 승천에 이어 재림까지 기념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수난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양식은 로마 전문, 곧 제1양식을 보완하여 개정한 것으로 “영광스러운”(mirabilis)이라는 단어를 통해 부활과 승천이 동일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밝힙니다.

제4양식은 기념 내용이 더욱 확장되어 ‘저승에 가심’ ‘성부 오른편에 오르심’ ‘다시 오심’(재림)까지 포함합니다: “주님, 저희는 지금 구원의 기념제를 거행하오니, 그리스도의 죽음과 저승에 가심을 기억하며, 부활하시어 성부 오른편에 오르심을 증언하나이다. 또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이 기도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저승에 감,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을 구분하는데, 특히 제3양식과 함께 주님의 재림을 구원 역사의 완성으로 제시함으로써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성찬례를 거행했던 초대 교회의 뜻을 강조합니다. ☸

홍유선 임마누엘	주 임 신 부	행 주 성 당  성모몽소승천	토 요 일	19:00 토요저녁주일미사
031-974-1728	사 무 실		주 일	09:00 주일 아침 미사 11:00 교 중 미 사
031-972-8537	팩 스		평 일	11:00 월, 화, 수, 목, 금
sd.uca.or.kr/hjsd1909	홈 페 이 지		성 시 간	15:00 매월 첫 금요일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주 소		성모신심미사	11:00 매월 첫 토요일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당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 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2차 헌금

오늘은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후원하기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본당공지

■ 집중 판공 성사

일 시: 4월 12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 주님 부활 대축일 세례 성사

그동안 예비자 교리를 받으신 박윤자님과 이정순님이 4월 20일(주일) 오전 11시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 중에 세례 성사를 받으십니다. 두 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 중에 기억하여 주십시오.

■ 단체별 수난 감실 조배 순서

시 간	단 체
22시 - 24시	성가대, 사목회
24시 - 06시	자유로운 시간 (시간이 되시는 분)
06시 - 08시	레지오
08시 - 10시	1구역, 2구역
10시 - 12시	3구역
12시 - 14시	4구역, 5구역

우리들의 정성 (3월 24일 - 3월 30일)

교 무 금	9건	1,550,000원
주 일 헌 금		970,000원
신설본당후원 2차		575,000원

■ 교중 미사 주송자, 예물 봉헌 담당

04월 06일	주송자	오정화(아녜스)
	양경희(루시아), 류은희(소피아)	
04월 13일	주송자	신은석(안젤라)
	김남일(미카엘), 배현숙(헬레나)	

전례

■ 사순 시기 십자가의 길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에 있습니다.

■ 성삼일 전례 안내

4월 17일(목) 주님 만찬 성목요일	오후 8시	성목요일 미사, 현양제대 수난 감실 조배
4월 18일(금) 주님 수난 성금요일	오후 3시	금요일 전례 (성지복구 특별헌금)
4월 19일(토) 파스카 성야	오후 8시	부활 성야 미사
※성삼일 동안에는 평일 오전 11시 미사는 없습니다.		

※4월 20일 주님 부활 대축일 오전 9시 미사는 봉헌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가난한 이들을 위한 2차 헌금

다음 주일에는 우리 이웃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행주성당의 성역화를 위하여 후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